



미 관악 밴드와 아리랑... 솔리스트의 향연

제주국제관악제 여름 시즌
지난 8일 BBBC 개막 공연
관악제 전현직 예술감독 참여
서영택·김수인 '밀양아리랑'
이색 협연 등 열띤 무대 펼쳐

진지함 속에 유쾌함을 품은 무대였다. 2시간 넘는 연주회가 끝난 후엔 기립박수로 호응한 관람객들에게 화답하듯 지휘자와 일부 단원들이 공연장 로비에서 사인 행사를 가졌다. 지난 8일 저녁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린 BBBC(Brass Band of Battle Creek)의 2026 제주국제관악제 여름 시즌 개막 공연이다.

미국 미시간주 배틀 크릭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BBBC는 "세계 정상급 관악 솔리스트들이 모여 결성한 브라스 밴드"다. 제주국제관악제(이하 관악제) 전현직 예술감독인 앤스 린더만(트럼펫)과 스티븐 미드(유포니움)도 BBBC의 멤버다. 이날 두 사람은 솔리스트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무대 양옆을 지켰다.

관악제를 계기로 처음 한국 땅을 밟은 BBBC는 마이클 J. 개러시의 지휘로 '실버라도 주제작'에서 '싱, 싱, 싱(Sing, Sing, Sing)'까지 10여 곡을 펼쳤다. 협연 무대에서는 우리 소리와 관악 밴드의 어울림을 빚어냈다. 소리꾼 김수인의 '신밧노래', 테너 서영택의 '비마이 러브'에 이어 김수인·서영택이



① BBBC(Brass Band of Battle Creek) 연주가 끝난 뒤 청중들의 기립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다.
② 테너 서영택, 소리꾼 김수인이 '밀양아리랑'을 협연하고 있다.
③ 세계 정상급 관악 솔리스트들이 모인 단체임을 보여주듯 저마다의 기량을 펼치는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④ 개막 공연장 로비에서 해외 참가자들이 관악기 부는 초형을 앞에 모으며 추억의 사진을 남기고 있다.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 제공

함께 무대에 올라 BBBC와 호흡을 맞춰 '밀양아리랑'을 선사하며 객석의 분위기를 달궜다.

개막 공연은 중간 휴식 뒤 이어진 무대에서 한층 열기를 띠었다. BBBC 단원들이 저마다의 기량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다. 트럼펫, 트롬본, 실로폰, 드럼 등 각 곡마다 도드라진 솔로 연주를 이어 갔고 때로는 지휘자와 밀고 당기는 퍼포먼스로 청중들에게 즐거움을 안겼다.

BBBC는 세 차례 앙코르에 응했다. 그 중 한 곡은 첫 내한 공연이라는 의미를 살린 듯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을 준비했

다. 마지막 앙코르 곡을 연주하기 전에는 앤스 린더만 예술감독이 잠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관악제는 북미권에서 잘 알려진 페스티벌이다. 미국 각지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뮤지션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공연을 하게 됐는데 모두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BBBC는 서귀포에서도 특별 공연(유료)을 갖는다. 11일 오후 7시 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이번 개막 공연에는 관악제 참가자와 일반 관람객들로 음악회 시작 전부터 행사장 로비가 북적였다. 관악제 조직위는 어린이 등 방문객들을 위해 관악기 부는 사람들 주제

조형물로 로비 한편에 포토존을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 이 조형물은 해변공연장으로 옮겨 오는 15일까지 그곳에서 관악제의 추억을 남기는 사진 촬영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일 U-13 관악 경연대회로 막이 오른 제3회 관악제는 오는 15일까지 문예회관, 해변공연장, 서귀포예술의전당, 천치연포목 등 시내의 공연장에서 잇따른다. 이 기간 베이스트롬본, 유포니움, 튜바, 타악기 4개 부문에 걸쳐 제2회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도 치러진다. 콩쿠르 시상식과 입상자 음악회는 14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영화觀 파리의 사생활

서로의 통로

일을 오래 하면 베테랑이라는 칭호가 붙는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라는 말도 있다. 한 가지 업으로 경력을 오래 쌓은 사람들은 자연스레 세월의 힘을, 자신이 간직해 온 루틴의 힘을 믿기 마련이다.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만든 동력이기에 습관의 힘을 믿는 일은 불안과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나 자신을 믿는 일이기도 하다. 나를 믿지 않으면 세상을 의심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나를 믿다 보면 한편으로는 내가 쌓은 벽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안전하게 구축된 나의 영토에 세월만큼 두텁고 높아진 벽이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눈을 크게 떠도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 그 안의 나는 나의 소리만을 듣기 마련이다. 갇힌 채로 안전한 모순 속에서 나의 균열과 부식을 눈치채기란 어렵다.

한편 지난 7일 U-13 관악 경연대회로 막이 오른 제3회 관악제는 오는 15일까지 문예회관, 해변공연장, 서귀포예술의전당, 천치연포목 등 시내의 공연장에서 잇따른다. 이 기간 베이스트롬본, 유포니움, 튜바, 타악기 4개 부문에 걸쳐 제2회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도 치러진다. 콩쿠르 시상식과 입상자 음악회는 14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영화 '파리의 사생활'.

않으면 삶의 동선을 걸을 수 없게 설계된 사람에게 폴라의 죽음은 견고한 일상을 뒤흔든다. 내 삶이 잘못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릴리안을 덮쳐온 것이다. 눈물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안과 의사인 전남편을 찾아가야 하고, 죽음의 원인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최면술사의 능력을 빌려야 한다. 모르는 것들이 다가왔을 때 안전한 영토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릴리안은 사방을 둘러싼 투명한 벽을 인지하고 밖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게 된다.

'파리의 사생활'은 미스터리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장 영화의 행보를 보여준다. 이유를 찾는 수사의 과정은 결국 지금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여정이 된다. 과거의 나로 만들어져 현재를 살고 있는 내가 있고, 현재 또한 미래에는 과거라는 영토가 될 것임을 릴리안은 알게 된다. 투명하고 안전한 벽에 문을 내고 밖을 향해 스스로를 꺼낸 릴리안은 새로운 자신으로 환자 앞에 선다. 언제나 죽음에 의존하던 릴리안이 죽음 대신 듣는 일을 택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녀의 벽에는 타인의 마음이 들어올 구멍이 생긴다. 그 안으로는 나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빛과 바람이 들고 날 것이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U-13 관악 경연대회 대만 청신·삼양초 금상

2026 제주국제관악제 여름 시즌 첫날 진행된 U-13 관악 경연대회(Band Contest)에서 대만 청신아카데미 초등학교 관악단과 제주의 삼양초등학교 윈드오케스트라가 나란히 금상을 차지했다.

지난 7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대만 4팀, 국내(제주) 5팀 등 초등학교 관악단 9팀이 참가했다. 심사 결과 금상 2팀, 은상 7팀, 지도교사상을 선정했다.

금상에 이은 은상 수상 팀은 대만 룡푸초등학교 관악단(대만), 삼화소리울림윈드오케스트라(제주), 이도초등학교 윈드오케스트라(제주), 타이베이시민취안초등학교 관악단(대만), 선홍푸른울림 브라스 밴드(제주), 원더초등학교 관악단(대만), 인화마음나눔윈드오케스트라(제주)다. 지도교사상은 금상을 수상한 삼양초등학교의 이호석 교사가 받았다.

진선희기자

문화가 쏙지

▷제주4·3평화문학상 수상 작가 북토크 '세 작가, 하나의 기억'=제주4·3평화재단 주최로 이상아의 '밤이여 오라' (9회), 임재희의 '세 개의 빛' (11회), 김미수의 '마중' (13회) 등 3명의 작가가 각각의 당선작을 중심으로 작품 속에 담긴 메시지 등을 풀어낼 예정이다. 북토크에 앞서 '순이 삼촌' '제주도 우다'의 현기영 소설가를 특별 초청해 4·3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순서도 마련한다. 무료. 오는

21일 오후 5시 서울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 다음 달엔 제주문화관에서 북토크가 열린다.

▷제주항일기념관 제8주년 광복절 현장 체험 프로그램=광복절인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항일기념관에서 진행한다. 별도 신청 없이 기념관을 찾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독립운동가 기록, 나라사랑 예코백, 자개 열쇠고리, 태극 바람개비 만들기 등을 준비했다.

제주↔베트남전세기 3박5일
10. 3(토,밤출발) - 10. 7(수,아침도착)

하노이, 하롱베이 1,290,000
하노이, 사파 1,390,000

제주↔일본전세기 3일

특별한 가을 여행

오кина와 10.16(금)-18(일)
구마모토 10.31(토)-11.2(월)
1,099,000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제주↔항주(룽에어)
매주 목요일 | 10명 이상 출발 | 3박4일

노팁! 노옵션! 노쇼핑!

항산 1,199,000
오진 1,199,000
상해 1,099,000

가을 항산 4인 출발확정
• 10.8(목) - 11(월) 1,249,000(한글날연휴) • 11.2(월) - 5(목) 1,199,000

제주직항 없을 때는 청주경유가 최고!

제주↔청주↔장가계

장 9월 특가 (노옵션)
3박4일(토) 4박5일(화)
849,000

제주↔청주↔베트남

베 3박5일 (노팁,노옵션)
다낭&호이안
750,000~
나트랑&달랏
제주↔청주 국내선 별도



니하오여행사 064)722-6638 제주시 진남로 32

포함 사항: 왕복항공료(공항세, TAX, 유류할증료 포함), 호텔(2인1실), 차량료, 입장료, 식사, 가이드, 여행자보험 등
불포함 사항: 부가가치세(10%), 봉사료, 선택관광 | 2억원 보증보험 가입업체